



박희우 연구위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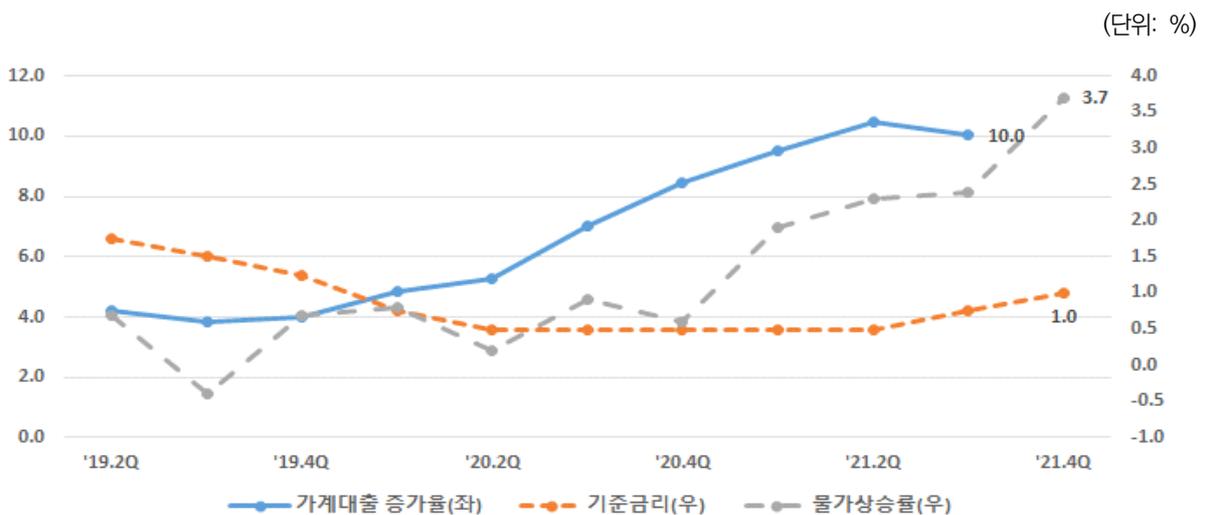
-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가속화 등으로 향후 보험계약 해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대면 보험 해지가 가능해 집에 따라 소비자의 보험 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음
 -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 행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은 중요할 것임
- 본고에서는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의 신용활동 행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분석결과 소비자는 보험계약 해지 전 신규대출을 통해 재무적 곤경을 1차적으로 해소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는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현금 확보를 위해 주로 카드, 은행업권에서 담보가 필요하지 않은 카드대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았으며,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한 비율은 높지 않았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계약 해지 전 은행·신용대출을 늘린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카드를 늘린 소비자가 많음
 - 즉, 소비자는 보험계약 해지 전 한도가 낮지만 심사가 간편하여 빠르게 대출 실행이 가능한 상품을 선호하는 모습이고 고연령층일수록 그 선호도는 높아짐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유지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해지 전 주로 금리가 높거나 만기가 짧은 대출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 실행 후 소득 증가가 없을 경우 가계 재무상황 악화 및 보험계약 해지가 추가로 발생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보험계약 해지 전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비자는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여 보험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과 대출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대출과 더불어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등 보험계약 유지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소비자와 보험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서론

-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기준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가속화 등으로 인해 향후 보험계약 해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대면 보험 해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 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음
 - 최근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 기준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보험계약 해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보험계약 해지의 원인에 대한 주요 이론적 근거로는 긴급자금가설, 이자율가설, 인플레이션가설 등이 있으며, 실업, 가계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소득·지출능력이 감소하거나 금리와 물가가 상승하여 다른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되거나 보험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할 때 보험계약 해지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음¹⁾
 -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9년 이후 상승세가 확대되며 2021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0%를 기록하였고, 기준금리는 2022년 1월 1.00%에서 1.25%로 0.25%p 상승하였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10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3%대를 나타내며 한국은행 목표치인 2.0%를 넘어서고 있음
 - 이와 더불어 2월18일부터 사전에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비대면 해지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소비자의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음

〈그림 1〉 가계대출 증가율,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1) Outreville(1990), "Whole-life Insurance Lapse Rates and the Emergency Fund Hypothesis", *Insurance: Mathematics and Economics*; Kim(2005), "Modeling Surrender and Lapse Rates with Economic Variables"; 최영목·최원(2008), 『경제변수가 생명보험 해약률에 미치는 영향』; Knoller et al.(2016), "On the propensity to surrender a variable annuity contract: an empirical analysis of dynamic policyholder behavior"

-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 행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은 중요한 것임
 - 보험계약 해지 시 소비자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일정 비용이 발생하며,²⁾ 소비자의 연령이 높아지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동일한 담보의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경우 예상보다 많은 해지환급금으로 인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산운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³⁾
 - 또한 일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아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낮은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음⁴⁾
 -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가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본고에서는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의 신용활동 행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한국신용정보원 CreDB를 통해 보험계약 해지 전 개별 소비자의 월별 대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신용활동 행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CreDB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신용정보를 샘플링하여 가명조치한 분석용 데이터이며, 보험신용정보에는 인보험, 정액보험 정보가 등록됨⁵⁾



2. 보험계약 해지 및 분석 요건 정의

- 보험계약 해지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는 주로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해지 전 대출을 늘리는 등의 신용활동 행태를 보일 수 있음
 -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보험료 납입의무를 불이행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함⁶⁾
 - 생명보험협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계약 해지의 주된 원인은 소비자의 경제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⁷⁾
 - 생명보험 성향조사에 따르면 보험계약 해지·실효의 원인은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목돈의 필요성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

2) 한국소비자원(2019)에 따르면 보험소비자의 평균 해지 환급률은 69.7%로 나타남

3) 이석호(2017), 「최근 보험계약 해약 동향 및 시사점」, 금융연구원

4) 오창수, 박영준(2020), 「보장성보험 해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연구』

5) 한국신용정보원(2021. 6), 『신용정보 맞춤형DB 이용자 매뉴얼』; 한국신용정보원(2021. 4), 『보험신용정보 표본DB 이용자 매뉴얼』

6)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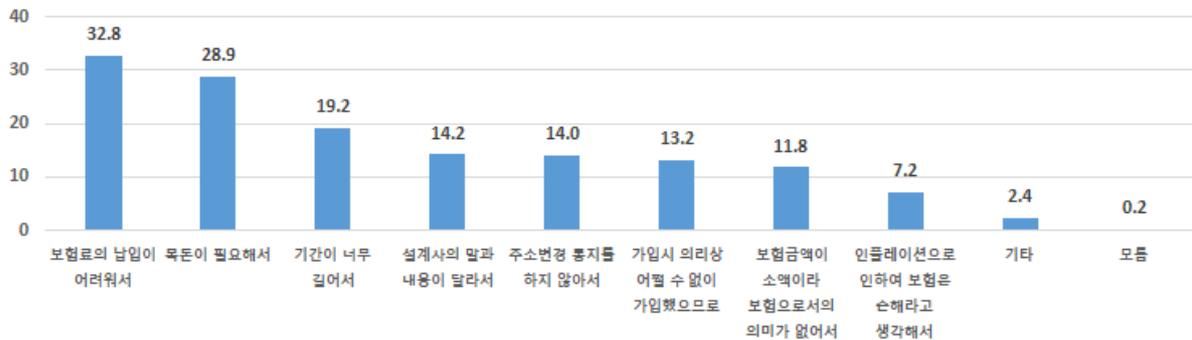
7) 생명보험협회(2021),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한국소비자원(2019), 「생명보험 해약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료 납입 곤란 등 경제사정에 대한 응답(44%)이 가장 많았음

-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는 소비의 평탄화를 위해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대출을 늘리는 등의 신용활동 행태를 보일 수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업권별·상품별 대출액 변화를 분석하여 이를 파악할 것임

〈그림 2〉 보험계약 해지 이유

(단위: %)



주: 복수 응답임

자료: 생명보험협회,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 우선 보험계약의 해지를 정의한 후, 보험계약을 한 번 이상 해지한 소비자가 해지 전 대출을 늘리거나 소비를 증감한 비율을 산출하여 전체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볼 것임

- 보험계약의 해지는 분석기간인 2019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t-1월에 정상 상태였던 계약이 t월에 실효·해지 상태로 변화하는 경우로 정의함
 - 분석기간 내에 한 소비자가 복수 건의 보험계약 해지를 했을 경우 가장 최근 월의 해지 건에 대해서만 분석함
 - 분석기간 중 30.3%의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한 번 이상 해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지 전월 보유 계약 중 8.7%가 저축·연금 보험이었지만 해지 계약 중 10.3%가 저축·연금 보험으로 나타나 소비자는 해지환급률이 높은 저축성 보험에 대한 해지를 보장성 보험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임
- 보험계약을 해지한 소비자 중 해지에 앞서 대출을 늘리거나 소비를 증감한 비율을 산출하여 이 값을 전체 분석기간 및 대상자에 대한 비율과 비교할 것임⁸⁾
 -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 행태의 파악을 위해서는 전체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대출 보유액 증가 여부는 t월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t-6 ~ t-1월) 한 번이라도 전월 대비 대출 보유액이 증가한 경우가 있는지를 산출함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매월 보유 대출 중 일부를 상환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출 보유액이 감소 혹은 변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출 보유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신규 대출을 받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음⁹⁾

8) 분석에서는 3개월 평균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6개월간 대출 증가 여부를 산출하였는데, 각각 기간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등의 기간으로 변화하여도 뒤에서 논의할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남

9) 분석기간 중 전체 소비자의 총 대출 보유액이 전월 대비 증가한 경우는 5%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업권별로 살펴보면 카드(3.0%)·은행(1.8%)을 제외하고 상호금융·저축은행·보험·캐피탈·대부업에서 1% 미만으로 나타남

-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감 여부는 t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t-3 ~ t-1월) 평균 사용금액이 12개월 전(t-15 ~ t-4월) 평균 사용금액에 비해 증가 혹은 감소하였는지 계산함
- 위 분석을 통해 일반적으로 전체 소비자가 대출을 늘리거나 소비를 증감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가 해지 전 대출을 늘리는 비율 혹은 소비를 증감하는 비율이 더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파악할 수 있음

〈표 1〉 분석 요건 및 주요 용어 정의

항목	설명
분석기간 및 대상자	2019년 6월~2021년 3월 ¹⁰⁾ 보험계약정보를 보유한 소비자
보험계약 해지	소비자 기준으로 분석기간 중 최초 건에 대하여 t-1월에 정상상태의 보험 계약이 t월에 효력상실 혹은 해지로 변화하는 경우
대출 보유액 증가 여부	t월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t-6 ~ t-1월) 한 번이라도 전월 대비 대출 보유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감 여부	t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t-3 ~ t-1월) 평균 사용금액이 12개월 전(t-15 ~ t-4월) 평균 사용금액에 비해 증가 혹은 감소한 경우



3.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 신용활동 행태

-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소비자는 소비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는 모습이며, 해지 전 소액대출 위주로 대출을 늘리는 모습임
 -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유의미하게 늘리거나 줄이지 않았으며, 이는 소비자가 소비의 평탄화를 추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 보험계약 해지 전 3개월 평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직전 12개월 평균 대비 감소한 비율은 36.1%로 전체와 비교하면 5.2%p 높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증가한 비율도 전체에 비해 4.9%p 높게 나타나 보험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는 해지 전 소비를 늘리거나 줄였다고 해석하기 어려움¹¹⁾
 - 소비자는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신규 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소액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임
 - 보험계약 해지 전 6개월간 총 대출 보유액이 전월 대비 한 번이라도 증가한 비율은 27.5%로 전체에 비해 7.8%p 높으며, 1,000만 원 미만 대출의 보유액이 증가한 비율은 7.4%p, 1,000만 원 이상은 3.2%p 높게 나타나 소비자는 해지 전 소액대출을 늘리는 비율이 높음

〈그림 3〉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감 비율

	전체	해지	차이(해지-전체)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	25.0%	29.9%	4.9%p
신용카드 사용금액 감소	31.0%	36.1%	5.2%p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CreDB

〈그림 4〉 대출 보유액 증가 비율

	전체	해지	차이(해지-전체)
총 대출 증가	19.7%	27.5%	7.8%p
1000만 원 미만 대출 증가	15.0%	22.4%	7.4%p
1000만 원 이상 대출 증가	10.2%	13.4%	3.2%p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CreDB

10) CreDB에서 데이터 제공기간의 한계로 인해 위와 같이 분석기간을 설정함

11) CreDB에는 2개 이상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집중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변화가 없는 비율이 높음

○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해지 전 현금 확보를 위해 주로 카드·은행업권에서 담보가 필요하지 않은 카드대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았으며,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한 비율은 높지 않았음

- 업권별로 보면 보험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는 해지 전 카드·은행업권에서 대출을 늘린 비율이 높았으며, 상호금융, 보험 등의 업권에서는 대출 보유액이 증가한 비율이 뚜렷하게 높지 않았음
- 상품별로 보면 소비자는 보험계약 해지 전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신용대출 등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고 담보가 필요 없어 심사가 간편하고 빠른 현금 확보가 가능한 상품 위주로 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보험계약 해지 전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한 소비자 비율은 0.1%로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낮게 나타남

〈그림 5〉 업권별 대출 보유액 증가 비율

	전체	해지	차이(해지-전체)
은행	8.1%	10.4%	2.3%p
상호금융	2.0%	2.9%	1.0%p
카드	9.8%	15.5%	5.7%p
보험	0.5%	0.9%	0.4%p
캐피탈	2.2%	3.4%	1.3%p
저축은행	1.4%	2.5%	1.1%p
대부업	1.1%	1.8%	0.8%p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CreDB

〈그림 6〉 상품별 대출 보유액 증가 비율

	전체	해지	차이(해지-전체)
신용대출	6.1%	8.8%	2.7%p
주택담보대출	2.3%	2.7%	0.4%p
전세자금대출	0.9%	1.0%	0.1%p
보험계약대출	0.1%	0.1%	0.0%p
할부/리스	1.5%	2.1%	0.6%p
카드론	4.9%	7.6%	2.8%p
현금서비스	8.5%	13.6%	5.2%p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CreDB

○ 소비자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계약 해지 전 은행·신용대출을 늘린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카드론을 늘린 소비자가 많은 모습임

-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보험계약 해지 전 총 대출·은행대출을 늘린 소비자 비율 차이가 높게 나타남
 - 20대 이하에서 보험계약 해지 전 6개월간 총 대출이 증가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비율은 전체에 비해 9.0%p 높았으며, 은행업권 대출에 대해서는 3.5%p 차이가 나타남
- 상품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카드론을 늘린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행태가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해지 전 신용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나 고연령층은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카드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림 7〉 연령대별 대출 보유액 증가 비율 차이(해지-전체)

	총 대출	업권별		상품별		
		은행	카드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20대 이하	9.0%p	3.5%p	5.2%p	3.5%p	1.7%p	4.8%p
30대	6.9%p	1.9%p	5.0%p	3.1%p	2.1%p	4.5%p
40대	7.7%p	1.8%p	6.1%p	2.9%p	2.9%p	5.6%p
50대	6.9%p	1.9%p	5.2%p	2.2%p	2.6%p	4.8%p
60대 이상	7.1%p	2.1%p	5.1%p	1.6%p	2.8%p	4.6%p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CreDB



4. 시사점

- 소비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 재무적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도가 낮지만 심사가 간편하여 빠르게 대출 실행이 가능한 상품을 선호하는 모습이고 고연령층일수록 그 선호도는 높아짐
 - 분석 결과 소비자는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는 유지하고, 신규 대출을 통해 재무적 곤경을 1차적으로 해소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소액대출, 카드대출, 신용대출 등 한도는 낮지만 담보가 없고 심사가 간편하여 빠른 대출 실행이 가능한 상품을 선호하는 모습임
 - 또한 고연령층일수록 보험계약 해지 전 카드를, 저연령층일수록 은행, 신용대출을 늘리는 비율이 높았는데, 고연령층은 급한 생활자금에 대한 수요로 인해 금리가 높지만¹²⁾ 빠른 현금 확보가 가능한 대출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연령층은 생활자금 외에도 투자자금 마련 등을 위해 금리가 낮은 대출을 우선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추측됨
 - 생명보험 성향조사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계약 해지의 이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어려워서'·'목돈이 필요해서' 등 경제적 원인을 꼽는 비율이 높았음¹³⁾

-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소비자들은 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의 대출을 실행하고 보험계약대출의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유지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해지 전 주로 금리가 높거나 만기가 짧은 대출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 실행 후 소득 증가가 없을 경우 가계 재무상황이 다시 곤경에 빠지고 보험계약 해지가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거나 동시에 신용대출·카드론을 비롯한 무담보대출을 실행한 소비자의 경우 재무건전성(연체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¹⁴⁾
 - 또한 보험계약 해지 전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비자는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여 보험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과 대출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보험계약 해지 청구 시 보험계약대출과 더불어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보험가입금액 감액 등 보험계약 유지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¹⁵⁾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소비자와 보험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2)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1년 12월 기준 은행별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67~7.45%이며, 카드사별 카드론,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각각 9.79~14.94%, 16.04~19.65%임

13) 생명보험협회(2021),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14) 백철(2018), 「보험계약과 신용대출의 연관관계 분석」, 한국신용정보원

15) 한국소비자원(2019)에 따르면 소비자는 보험계약 유지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음